

#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5

## 8.15직후의 大邱 출판계 ②-啓蒙社창립 전후

◇말씀해 주신 분

金源大씨 (68·啓蒙社 회장)

해방된 나라에서 지식산업의 뜻을 펼치려다 6·25동란으로 좌절감을 안게 된 많은 출판인들은, 대구지역에서 다시금 再起를 다짐한다. 이무렵 영남일대에 책을 공급하는 매개자로서 충실한 몫을 했던 啓蒙社는, 분명 그 시기 지역 문화의 터를 일구게 한 커다란 물줄기였다. 계몽사의 창립자인 金源大씨(68)로부터 해방 직후 대구지역의 출판·서점가 주변 이야기를 듣는다. 대담은 李璟薰씨(普成社대표·본지 편집위원)가 맡았다.

— 아동도서출판사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힌 계몽사는, 해방직후 대구와 경북일대에서 제일 규모가 큰 서점으로 발돋움했던 것으로 압니다. 계몽사 창립(1946)을 전후한 시기의 대구 지역 출판상황과 함께 서점계 주변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회장께서 맨처음 대구 서점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주시지요.

### 대구역 앞에서 신문 가판으로 시작

“당시엔 사람들이 모두 신문 한조각이나 전단이라도 봐야겠다는 염원이 있었어요. 나는 해방직후 고향(안동) 근처에서 제일 큰 도시인 대구로 나와 일거리를 찾던 중이었죠. 시국이 불안정한 때라 사람들은 신문을 목말라할 것이 틀림없으리란 생각에서 우선 생활의 방편으로 대구역 앞에서 신문을 팔아봤습니다. 조그마한 탁자 하나에 「동아일보」 같은 신문 서너 가지를 벌여놔는데, 예상대로 아주 잘 팔렸습니다. 만나절도 못돼 동이 날 정도여서, 추운날도 새벽 6시면 뛰어나가 팔았죠. 그때 한창 좌익 계통의 팜플렛이 많이 나올 때여서 연말에는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 팔았는데, 어쨌든 우리 말로 된 출판물은 가져다놓기가 무섭게 팔려나 갑니다. 사실 해방직후엔 활자가 박힌 출판물이라면 무엇이든지 洛陽의 紙價를 올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 덕분에 조금씩 저축도 해서 1946년 말쯤엔 대구 중앙동의 포정동에 가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지요.”

1945~46년의 출판경향을 어떤 이는 ‘정치 사상에 관한 팜플렛시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해방후 1년간 출판의 특징적 경향이라

면 우선 50면 안팎의 얇은 팜플렛 형태의 출판물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체에 의해 봉쇄됐던 언론은 해방을 맞아 붓물 터지듯 자유를 구가했지만, 국문활자와 인쇄시설이 미비했고 용지마저 부족하여 출판여건은 상당한 제약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사상 관계를 다룬 4·6판 크기의 허름한 각종 팜플렛은 거리의 노점에서 5원 정도의 싼 가격에 불티나게 팔려, 당시 시민들의 갈증을 다소 해갈시키는 역할도 했다. 김원대회장이 가판에서 2만부 이상 팔아 본격적으로 서점을 마련할 수 있게 한 「한글 맞춤법통일안」이라는 책자 역시 100면 정도의 보잘것 없는 프린트물이었다.

— 계몽사라는 상호도 그때 만든 겁니까.

“그렇죠.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만, 해방이 된 나라에서 지식을 보급하는 서점이란 곧 계몽운동의 출발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떠올라 그렇게 이름붙인 것 뿐입니다. 굳이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우리 서점을 통해 계몽운동을 펼치고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을 계몽시키겠다는 뜻을 담았다고나 할까요.”

### 교통·통신 미비로 서울 출판사와 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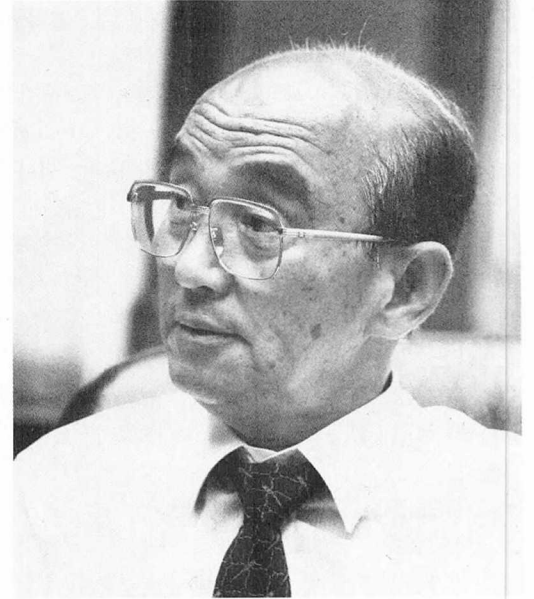
— 서점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과거엔 지방도시들의 여건이 모두 비슷했는데, 대구 역시 우편·통신 등이 서울과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책 몇권을 소포로 보내는 것조차 47년초에 들어서야 가능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일주일에 두세번씩 내가 직접 출장을 다녀오곤 했지요. 시간을 아끼려고 밤차로 올라가 새벽차로 내려오는 강행을 했어요. 모두 젊었으니 가능했던 게지요. 될 수 있는 한 많이 가져오려고 등에는 배낭에 책을 가득 넣어 메고, 양손에도 책바피리를 양껏 들고서 어떤 때는 내내 서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방 서가에 꽂아놓으면 하루 이들 새에 다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밤차로 올라가는 거지요. 대구서 나온 책이 거의 없었으니 서울의 출판사들과 직접 거래할 수밖에요.”

8·15이전의 도서판매는 대부분 출판사가 직접 경영하는 소매점에서 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회동서관, 한성도서, 박문서관, 영창서관 등들이었다. 해방직후에도 이러한 방법은 계속 유지됐으나 출판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이 총판이나 도매점이 생김으로써 소매상이 독

“대구엔 출판사가 몇 안돼 서울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많이 취급했습니다.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꽤 나갔고, 박문서관·영창서관의 고대소설들, 덕흥서림에서 나온 서간문범 등이 많이 팔렸습니다. 윤석중씨의 아동책들도 인기였죠.”



金源大씨

립, 일반독자들에게 책을 공급하는 유통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한편 경쟁적인 할인판매로 말미암아 독자의 불신을 초래, 후에 정찰계운동과 출판협동조합을 발족시키게 되는 요인을 이루기도 했다.

— 대구의 다른 서점들은 어땠습니까.

“襄聖道라는 분이 일본인이 하던古서점을 인수해서 태양당서점을 운영했었어요. 그 아들이 이어받아 서점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군요. 또 손중태씨라는 분이 대영당서적을 경영했었는데, 주로 초중고교 교과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던 서점이었지요. 그때 학원사의 金益達씨도 대구에서 낙동서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그이는 그때까지 나왔던 수백권의 유행가를 모아 당시 상당히 유행한 프린트물 형식으로 만들어 재미를 봤지요. 그후 김익달씨는 낙동서관을 그만두고 1948년엔가 서울에 올라가, 양동에 조그만 2층집을 얻어 대양출판사(뒤의 학원사)를 차려서 학습참고서들을 발행했습니다.”

나는 일반도서들을 고루 갖추느라 서울을 부지런히 오가며 웬만한 책을 모두 진열했는데, 사람들도 오래 우리 서점에 와서 책을 찾더군요. 그러면서 차츰 서점이 커나갔고, 아마 영남방면에서 내 서점이 제일 컸으리라 생각해요. 사변후까지도 상당히 활발하게 했고 거래망도 많았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이니 악착같이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뛰었지요. 태양당서점은 골목에서 좀 들어간 곳에 위치해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거기서 신간

을 더러 취급했거든요. 그래 나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그 집에 있는 책을 정가로 사다가 우리 서점에다 진열해놓기도 했습니다.”

### 「맞춤법통일안」 「문장강화」 등이 인기

— 당시 제일 잘 팔렸던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글학회에서 최현배씨에 의해 프린트돼 나온 「맞춤법통일안」이 있었는데, 그게 2만부 이상 팔렸어요. 초창기엔 출판물의 대부분이 프린트로 된 것이었는데, 이 책 역시 프린트물이었지요. 주로 교직원들이 많이 사서 봤어요. 한권 값이 2,3원이었는데, 당시 쌀 한말에 6,7원 할 때였으니까 2만부라면 상당한 겁니다. 덕분에 내가 서점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던 했지만요. 6만여원으로 서점을 차린 후에는 아까 말했듯이 주로 서울서 직접 가져온 책들이 잘 팔렸어요. 이태준의 「문장강화」가 꽤 나갔고, 박문서관의 대중소설이나 영창서관의 고대 소설, 덕흥서림에서 나온 서간문, 명문당의 점치는 책 따위도 많이 팔렸습니다. 해방후 새로 생긴 을유문화사에서 만들었던 윤석중씨의 아동책들도 인기가 있었지요.”

— 대구의 독자층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학생이나 교사 상대였어요. 교직원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때 알게 된 동국대의 金思燁씨에게서는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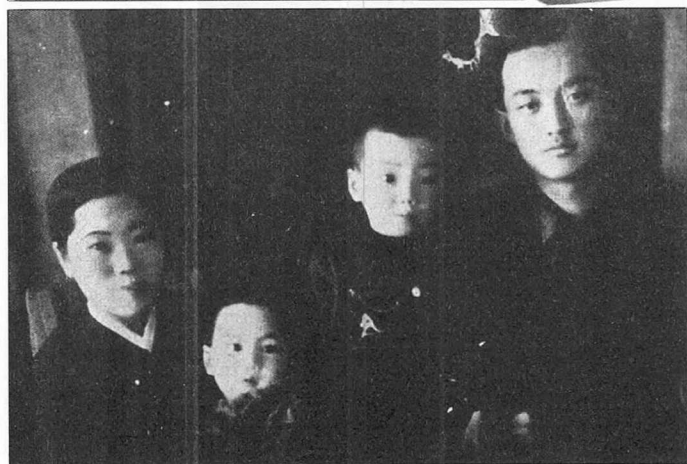
— 그럼 계몽사에서 출판을 시작한 것은 언제



1946년경 대구시 포정동에 자리한 계몽사서점과 金源大 회장.



계몽사가 처음으로 출판한 李雪舟의 시집 「放浪記」 (1948).



金源大회장의 가족. 장남 鴻植, 차남 春植. 현재 차남은 계몽사의 부회장, 3남 俊植은 사장으로 있다.

쯤입니다.

“해방직후부터 6·25사변 이전까지는 모두들 무언가를 만들어보겠다는 뜻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도 그 중 한사람인 셈이지요. 서점을 경영한 지 2년쯤 지난 1948년에 조그만 시집을 한권 간행했습니다. 당시 청구출판사 같은 몇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기왕의 출판사들이 책을 새로 낼 엄두를 못냈었던 상태였지요. 옛날 지형을 가지고 재판만 찍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형편이었고, 용지난까지 겹쳐 사실 출판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나 역시 본격적인 출판을 한다면 시집보다 시집보다 없이 필자와 내가 어렵게 어렵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李雪舟의 「放浪記」라는 시집이었죠. 그후 6·25가 나고 대구로 피란온 출판인들이 많아서 1950~51년에는 출판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미군정청에 출판등록을 한 후 계몽사가 처음으로 출간한 「放浪記」(1948.9)는 4·6판 크기의 자그마한 시집이다. 굳이 출판등록

을 하지 않고도 책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프린트물 형태로 된 소책자도 몇권 있어 몇만 부씩 팔리기도 했다. 어쨌든 처녀출판한 이후 1,2년 동안 「生活常識」 「玉篇」 등의 소책자를 몇권 발행했으나 판매가 부진했고, 또 계몽사는 도매부를 창설하여 주력하느라 출판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계몽사가 본격적으로 출판에 의지를 보인 것은 1949년. 이미 영남일대 제일의 서점으로 자리를 굳힌 계몽사는 서울 종로1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편집진을 구성, 학술서적과 사진류 편찬에 힘을 쏟는다. 그 결과 나온 책으로 金思燁교수의 「鄭松江研究」와 최숙형교수의 「詳說西洋史」 등의 학술서적과 「한글사전」 「최신 콘사이스 영한사전」 등의 사전류가 있다. 특히 「최신 콘사이스 영한사전」은 1949년 편찬작업에 착수, 1952년 5월에 출간했는데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출판의 불황기였던 1950년대에 계몽사는 이러한 사전류와 학습서를 펴내며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다. 계몽사가 아동도서로 출판방향의 대전환을

피한 것은 1959년경부터. 출판계 불모지였던 아동도서에 뜻을 굳힌 계몽사는 당시 유행하던 전집형태를 대대적으로 기획, 「세계소년소녀 문학전집」(전 50권)이 탄생한다. 이후부터 계몽사는 명실공히 아동도서출판사의 대명사로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6·25동란을 계기로 많은 출판인들이 대구로 피란와 활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지요.

“대구에서 활발히 활동한 곳으로 월간 「학원」을 창간한 학원사와 「건국공론」을 펴낸 현암사 등이 대표적이겠지요. 동아출판사도 참고서류를 만들어 발판을 굳혔어요. 동아출판사의 金相文씨는 부부가 다 교사출신이라서 대구로 와서도 국민학교용 참고서들을 직접 원고도 쓰고 프린트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상당히 글씨를 잘 썼죠. 그렇게 만든 책들을 자전거로 우리 서점에다 실어나르고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이는 수복 후에 서울로 근거지를 옮겼죠.

인쇄소로는 합진인쇄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기계가 3,4대 정도 있어 인쇄시설을 꽤 갖춘 편이었습니다. 나와 합작해서 참고서종류를 몇권 만들기도 해서 그걸 계기로 사조사라는 출판사도 차렸고, 6·25 직전엔 문성당이란 서점도 냈습니다. 사변이 난후엔 대구에서 인쇄사업을 충실히 했습니다.”

#### 대구지역에 대형 도서유통기구 창설하기도

—1950년을 전후해서 김회장께서 한국출판물판매주식회사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상황도 궁금하군요.

“6·25동란기에 대구와 부산의 출판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부산에는 주로 교과서를 출판하던 사람들이 피란을 많이 갔고, 일반도서를 취급하던 출판인은 거의 대구에 정착을 했습니다. 대구로 온 출판사 가운데 제대로 된 곳으로 장왕사, 백영사, 탐구당 등이 있었고, 신재영씨의 동구문화사나 민중서관 등 참고서관계 출판사는 거의 부산에 있었습니다. 일반출판물을 다루는 60여개사가 대거 대구로 내려와 있다보니 이들의 출판물을 거의 우리 서점에서 소화할 수밖에 없었지요. 외형적으로는 서점의 규모도 확장되어 계몽사를 통해 밀양, 울산, 진주까지 책이 나갈 만큼 됐어요. 그런데 그때 대구서 서점을 하던 평범사의 이활원씨가 부산에서 몇몇 서점들과 함께 대형유통기구인 대한도서공급주식회사를 만든

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자극받아 대구에서는 한국출판물판매주식회사를 만들 겁니다.”

6·25이후 전반적인 출판상황이 어려워지고 출판사의 형편이 나빠지자 덩핑업자를 중개로 하는 비정상적인 유통경로가 무질서하게 혼재해 출판물거래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이에 계몽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출판물판매주식회사가 1951년말 설립, 대형 도서유통기구가 조직된다. 이 법인체의 사장엔 李準轍씨, 상무는 金源大씨와 서울에서 일성당 도매상을 경영하던 黃宗勳씨가 각각 맡아 부산의 대한도서를 능가하는 전국 제일 규모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유통체계의 본질적인 무질서와 원활하지 못한 수급사정 등등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1953년 이 조직은 와해되고 만다. 유통 구조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한국출판물판매주식회사가 2년 남짓한 활동밖에 할 수 없었던 원인을 살펴봐도 혼란기였던 당시 도서유통의 여건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전쟁을 겪으면서도 많은 출판사들이 그 맥을 끊지 않고 대구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계몽사와 같은 탄탄한 서적상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후배출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지금 나는 출판현역에서 떠난 지 오래입니다. 사실 난 이제껏 출판에 대해선 이론적인 면보다는 장사에 비중을 뒀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다보니 영업면에서만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낫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편집인이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만든 책이라면 그것이 곧 양서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성의를 다해 만든 책을 정당한 통로로 독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 뿐입니다. 최소한 계몽사의 책들은 덩핑시장에서 볼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출판사업도 이론적인 면이 뒷받침돼야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 막내아들(金俊植·34)이 출판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현상유지는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엔 계몽사 하면 아동도서출판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해방직후엔 대구지역의 대형서점으로서 전국에 책을 공급하는 커다란 물줄기였음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김지원 기자